

‘신자 발견’: 산타 마리아상은 어디에?

개항과 선교사의 재방문

1854년, 도쿠가와 막부는 페리 제독을 통해 미국 간의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을 개항했습니다. 1859년부터 나가사키를 포함한 5개 항구를 순차적으로 개항하며 나가사키에 외국인 거류지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쳤던 로마 교황청은 일본에서 선교를 재개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8년 당시에 이미 베트남과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에게 임무를 내렸습니다. 요코하마가 개항하고 류큐에서 대기 중이던 파리 외방 전교회의 프루던스 지라르 신부가 프랑스 공사의 통역사로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1863년에는 루이 뷔레 신부가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이어서 베르나르 프티잔 신부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오우라 천주당의 건설과 신자 발견

지라르 신부가 1862년에 요코하마 천주당을 건설한 후, 뷔레 신부와 프티잔 신부는 나가사키에서 오우라 천주당의 건설에 착수하면서 1865년 2월에 헌당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우라 천주당을 건설한 표면상의 이유는 거류지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신부들이 일본을 찾은 가장 큰 목적은 나가사키의 잠복 기리시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865년 3월 17일, 십수 명으로 구성된 우라카미의 잠복 기리시탄의 무리가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날이 바로 잠복 기리시탄들이 프티잔 신부에게 신앙을 고백한 날이었습니다. 프티잔 신부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세 내지는 5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바로 옆에 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중략) ‘산타 마리아상은 어디에?’, 산타 마리아를 부르는 성스러운 말에 나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
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 일본 기리시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1865년 3월 18일자 프티잔의 서한)

약 2세기 반에 걸친 금교와 탄압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극적인 이 사건을 ‘신자 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자 발견은 탄압으로 인해 일본에는 더이상 신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유럽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 같은 최초의 접촉은 잠복 기리시탄에게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의 잠복 기리시탄들은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쿠레 기리시탄’, 그리고 불교 또는 신도(神道)로 개종하는 자 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왼쪽) 뷔레 신부가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오우라 천주당의 설계도
1864년경

(파리 외방 전교회)

(오른쪽) 우에노 히코마 촬영

《오우라 천주당》

1865 년경

(에자키 벳코텐)

일본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면에 ‘천주당(天主堂)’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다.

《오우라 천주당에서의 기리시탄 신앙고백》

빌리용 『일본성인 선혈유서』 1926 년 발췌